

서구 '따뜻한 마을 생태계 구축' 90곳 선정

마을·아파트공동체 등 3개 부문 3억2000만원 지원 이색사업 눈길

광주 서구는 '따뜻한 서구 마을생태계 구축'을 위한 2024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앞서 서구는 지난 2월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후 공모사업 접수와 함께 사업계획 작성법 등 교육·컨설팅을 마련했다. 마을공동체위원회 등 심사절차를 거쳐 최종 90개 단체에 보조금 3억2000여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공모사업은 △마을공동체(자유) △아파트공동체(자유) △기획공모(협력사업, 기후위기대응, 서로이음 리빙랩, 소동방)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서구는 관내 주민모임 또는 단체에 각 200만~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단체는 신규 공동체 비율이 49%로 주민자치의 다양성이 반영됐으며 생활밀착형 사업, 공동체 간 협력사업 등에 주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그중에서도 △대규모 원룸촌 주변 환경정비와 안심귀가, 집수리 공구대여, 고독사 예방지원

등 마을관리사무소(상무1동, 금호2동) △나눔·돌봄·기부 등 천사들의 하모니(금호1동 등 4개동) △임진왜란 회재 박광옥 선생의 나눔정신을 계승하는 시민오블리주(풍암동 등 5개동) △페트병 뚜껑을 활용한 마을 벽화사업(치평동 등 4개동) 등 이색·협력사업이 눈길을 끌었다.

각 단체들은 오는 30일 협약식 후 12월까지 활동을 펼치게 된다. 서구는 연말에 마을공동체 페스티벌을 개최해 성과발표 및 공유, 전문가 포럼 등 축제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 결과 등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세수 부족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마을공동체 활동의 버팀목이 되길 바라며 올해 공모사업 사업비도 예년 수준으로 꾸렸다"며 "마을의 현안 과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제안하고 해결해 나가는 따뜻한 서구 마을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비 기자 jubu.kang@jilbo.com

러시아어 이종언어강사 양성 과정 광산구, 5월 11일부터 2개월간

광주 광산구는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외국인인을 대상으로 '러시아어 이종언어강사 양성' 과정을 개설·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러시아어권 청소년의 학교·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가정과 학부모에게 전달되는 정보의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산구가 광주시교육청, 지역 대학과 협업을 진행한다.

과정은 이종언어강사의 이해와 역할, 한국어 문법, 한글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 등이다. 5월11일부터 2개월간 매주 토요일 오전 광주여자대학교에서 운영한다.

모든 과정을 수료한 외국인 주민은 교육청 및 이주배경 청소년을 위한 한국어 학급이 개설된 학교에 이종언어강사로 추천된다. 강사로 채용되면 언어의 한계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러시아어권 학생들과 한국인 교사 사이에서 소통 창구 역할을 한다.

광산구는 오는 25일까지 참여를 원하는 외국인 주민 20명을 모집한다. 신청은 광산구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상철 기자



평생교육 활동가 파견기관 모집 서구, 선착순 45개소

광주 서구가 평생교육 활동가인 '우리 마을 생태해설사'와 '그림책 읽어주는 시니어티처'를 파견받을 기관 45개소를 선착순 모집한다.

3일 서구에 따르면 '우리 마을 생태해설사'는 상무시민공원, 5·18기념공원, 전평제근린공원 등에서 자생식물의 종류와 특성 등을 알아보고 자연 생태놀이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6월~10월(8월 제외) 기관 20개소에 각 1회 지원한다.

'그림책 읽어주는 시니어티처'는 책을 통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독서 교육 프로그램이다. 7월~10월 기관 25개소에 최대 3회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등 7명 이상이 교육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기관이다. 서구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injuly9635@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단, 같은 사업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관은 제외된다. 강주비 기자



광주 서구가 운영하는 '우리 마을 생태해설사' 프로그램에 관내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 서구 제공

남구,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지원 우수기관에 뽑혀

복지부 전국 지자체 23곳

광주 남구는 정부 주관 '2023-2024년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3일 남구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보호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추진한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발굴·지원 실적을 평가했다.

평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실적과 지역별 위기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 발굴사업 실적 △민·관 협력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여도 등 4개 지표를 반영했다.



광주 남구 관계자들이 겨울철 창문틈 방풍 작업을 하고 있다.

광주 남구 제공

남구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특화사업을 펼쳐 전국 23개 지자체와 함께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렸다.

고독사 예방 방지를 위한 자체 사업인 3-24H 안부 시스템과 주거 위기자에 머물 곳을 제공하는 으뜸호 남구 안심돌봄주택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3-24H 안부 시스템은 17개동 취약계층 가구와 결연을 맺은 주민 577명이 3시간 이내에 전화 또는 가정방문으로 취약계층 주민의 안부를 확인한 뒤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24시간 안에 외부기관 협조를 얻어 응급조치까지 마무리하는 특별 관리 시스템이다.

남구는 지난해 11월부터 2월까지 4차례 안부 파악에 나선 바 있다. 정상이 기자

치매 인식개선 영상 공모전 남구, 관내 소재 대학생 대상

광주 남구는 관내 소재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과 극복 메시지를 담은 영상공모전을 실시한다.

3일 남구에 따르면 대학생 치매 인식개선 영상공모전이 오는 5월17일까지 7주간 진행된다.

공모전 주제는 치매 극복을 담은 메시지를 비롯해 치매 인식개선 아이디어, 남구 치매안심센터의 기능 및 역할이다.

동영상 작품 형태는 다큐 또는 애니메이션, 브이로그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참여 자격은 관내에 소재한 광주대와 기독교간호대, 송원대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생으로, 개인 또는 5인 이하 팀으로 참여할 수 있다. 1인 또는 1팀당 영상 작품 제출 수는 1점이다. 출력작 규격은 30~90초 이내 분량에 해상도 FHD 1920×1080 픽셀로 제작한 영상물이어야 하며, 파일 용량은 최대 1GB 이내에 MP4 또는 AVI 파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전 서류는 남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내려받은 뒤 오는 5월17일까지 담당자 이메일(007file@korera.kr)로 제출하면 된다.

남구는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명(팀)에게 구정장상과 문화상품권 70만원을 시상하며, 우수상과 장려상 수상자에게도 각각 구정장상 및 문화상품권 50만원과 문화상품권 20만원을 제공한다. 정상이 기자

북구 '도서관의 날' 독서문화 행사 다채

광주 북구는 제2회 도서관의 날을 맞아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5개(중흥·일곡·운암·양산·신용) 구립도서관에서 독서문화 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매년 4월12일 '도서관의 날'은 도서관에 대한 주민 이해와 관심을 높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북구 5개 구립도서관은 '도서관, 당신의 내일을 소장 중입니다'를 주제로 △강연 5개 △체험 12개 △전시 10개 △기타 13개 등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중흥도서관에서는 '신민재 작가와의 만남', '우리는 책과 함께하는 가족' 등 10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일곡도서관

에는 '한얼 작가와의 만남', '나만의 북커버 만들기' 등 7개 프로그램이 주민들에게 제공된다.

운암도서관은 '이송희 교수 인문학 특강(예술가의 연인들 사랑과 욕망을 그리다)', '아로마 모스큐브 만들기' 등 8개 프로그램을, 양산도서관은 '북구문화센터 연계 강연 문헌의 작가와의 만남', '책갈피 만들기'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용도서관에서는 '조숙경 교수 강연(노벨상도 작은 만남에서 시작되었다)', '힐링 오일아트 드로잉' 등 7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프로그램 참여는 북구통합도서관 누리

2024 상반기 신용도서관 도서관의 날 도서관주간 2024. 4. 12. (목) - 4. 18. (목)

신용: 4.12(목) - 신용 | 광주북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www.bukgu.go.kr) 또는 북구도서관(010-410-8854)

<p>1. 노벨상도 작은 만남에서 시작되었다</p> <p>4.13(금) 14:00-15:30 / 중흥도서관</p>	<p>2. MMT 상권유형별 주민 도서</p> <p>4.12(목) - 4.18(목) / 양산도서관</p>
<p>3. 북구 문화의 날</p> <p>4.12(목) 17:00-18:30 / 송원도서관 / 중흥·양산·신용</p>	<p>4. 두 발로 달을 걷자</p> <p>4.12(목) - 4.18(목) / 각 도서관</p>
<p>5. 북드림! 대하! 대하! 대하!</p> <p>4.12(목) 17:00-18:30 / 송원도서관 / 중흥·양산·신용</p>	<p>6. 인제지 체험 주간</p> <p>4.12(목) - 4.18(목) / 각 도서관</p>

신용도서관 010-410-8854

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성현 기자

'머물고 싶은 골목길' 개발 지원 광산구, 최대 1000만원까지

광주 광산구는 민생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머물고 싶은 골목길 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골목상권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 상인의 활성화 아이디어를 모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모집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광산구는 참여 의지, 실행 가능성, 효과 등을 심사해 5월 중 15개 단체를 선정, 최대 1000만원까지 사업 비용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산구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류를 작성,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상철 기자